

## 하나님의 획기적 구원 계획

성경말씀: 롬3:9-26

인사청문회, 장관과 청장 9명, 국무총리

위장전입, 탈세, 학력위조, 위장취업, 투기, 다운계약서, 이중국적, 죄송 청문회, 난감하다. ★★★  
의는 한 민족을 높이고 죄는 어느 백성에게나 수치거리가 되느니라(잠14:34).

왕 앞에서 사악한 자를 제거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좌가 의 안에서 굳게 서리라(잠25:5).

통치자와 지도자가 일반 백성보다 더 의로워야 제대로 나라가 된다.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롬13:1; 딤후2:2). ★★★

이런 총체적 부실과 타락의 원인은 국민 모두에게 있다. 특히 믿는 자들과 목사에게 있다. ★★★  
맞하는 국회의원들 모두가 다 그 사람보다 나을 것이 별로 없다.

오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들을 보자.

판단하는 우리는 다른가? 결코 의로움을 포기하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김정일, 박근혜, 박지원, 교황, 테레사 수녀, 법정 승려 ...  
다 동일한 죄인들이다.

9절: 우리는 그들보다 나은가?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자식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부모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

### 사람의 상태(10-18절)

1. 무죄 상태(아담과 이브), 사람의 타락
2. 양심이 작동하는 상태(가인과 아벨, 노아 등), 양심은 자동차의 계기판, 노아의 대홍수
3. 인간 정부 상태(바벨탑 이후): 유대인과 이방인, 바벨탑 반역
4. 이스라엘 12지파: 족장들
5. 이집트 탈출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주어졌다: 시내 광야에서의 반역

그 이후로 약 1500년 동안 율법 아래에서 이스라엘이 지내면서 얻은 결론:10-18절  
10-18절은 다윗이 지은 시편 14편

결론: 의인은 단 하나도 없다.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 사람들은 철학과 종교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바빌론 제국 시대 이후로 자기보다 조금 더 선한 사람을 찾아내어 성인이라 부르기 시작하였다.

천주교회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만든 성자들이 양산되기 시작하였다.

성 프란시스, 성 어거스틴, 성 김대건, 성 테레사, 다 죄덩어리이다.

성경이 말하는 성인은 예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들이다. ★★★

### 하나님의 판결(19-20절)

율법에 속한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단 하나도 없다. ★★★

율법은 죄를 알게 해 준다. 거울과 같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끌고 가는 훈육 선생이다(갈3:24).

율법은 선하지만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

100% 지키면 가능하지만 하나라도 어기면 불가능하다(약2:10).

신구약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통해 의롭게 된다. ★★★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이 모두 율법에 따라 희생 예물을 드렸다.

아무 생각 없이 죽지 않기 위해 드린 사람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므로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드린 사람  
단순히 율법을 키는 것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하다(히11:6).

지금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구약의 율법 시스템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다.

교회 안에도 부지기수이다.

열매 없는 일들에 참여하는 자들이다(엡5:11).

우리는 어떤가? 모두 죄인임을 시인하는가? ★★★

## 죄는 무엇인가?(23절)

하나님 앞에서의 죄: 과녁을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어진 사람은 목표를 갖고 태어난다. 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개는 자기가 토했던 것으로 되돌아가고 돼지는 진창 속에서 뒹군다(벧후2:22).

영광은 어떤 존재의 위엄이 외적으로 표출되는 것, 대통령의 영광, 금메달리스트의 영광  
출33:18-23, 모세의 요청, 주의 영광을 보여 주십시오. 뒷부분은 보되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여기의 얼굴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히1:3,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다.

창세 전부터 그분은 아버지와 동일한 영광을 가졌다(요17:5).

승천하시면서 그 영광 속으로 들어가셨다(눅24:26).

사람 편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이다(벧후1:4). ★★★

그런데 죄로 인해 죄를 지어 누구나 다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23절). ★★★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거룩함, 공의, 사랑, 공휼)과 사람의 타락을 보여 준다.  
그러다가 신약에 오자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입증하셨다.  
그분이 말하고 행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 없다(요14:6).

우리는 어떤가? ★★★

## 하나님의 해결책(21-26절)

율법 밖에 있는 의: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다(롬1:16-17).

의(칭의) 등으로 60여 차례나 로마서에 나온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 하나님의 의를 얻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공의, 공정한 도의, 옳고 그른 것을 심판하는 것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 들어 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핵심이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은 죄를 처벌하심으로써 의를 드러내셨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 구약 시대의 범죄들을 다 구속하셔서 의를 이루셨다(롬3:25; 히9:15).

사흘 동안 지하 세계에 가셨다가 부활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의로운 혼들을 모두 데리고  
하늘로 들어가셔서 구약 시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자신의 의를 드러내셨다(엡4:7-10).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심으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셨다.

복음에서 드러난 새로운 종류의 다른 의의 특징

1. 율법 밖에 있는 의(21절): 무엇을 지키는 것으로 얻는 의가 아니다. '해라, 말라' 시대가 아니다.
2.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오는 의(22절): 내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오는 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고난과 죽음의 아픔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던 그  
소망의 믿음,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에게서 오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한 의
3. 모두에게 임하는 의(22절): 과거의 율법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졌으나 구원의 복음은 이제 모두에  
게 주어졌다. 여기에는 차별이 없다(22절). 모두가 죄임이기 때문에 모두를 구원하는 의가 와야만  
한다.
4.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의(24절): 아무 이유 없이, 내가 무엇을 행하지 않았는데도, 도저히  
받을 수 있는 처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저 베푸시는 호의
5. 일괄타결 하는 의(26절):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성도들을 의롭게 만드는 분이 되셨다.

고후5:21

## 하나님의 의를 얻었는가?

사도 바울의 고백: 율법 밖에 있는 의, 하나님의 의를 얻음으로 모든 것을 얻었다(빌3:7-11).

우리는 어떤가? ★★★

그 의를 얻는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